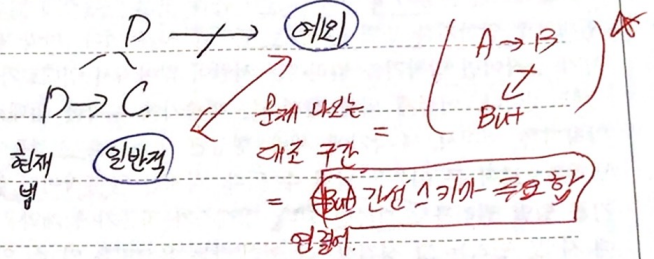


(시간↑ = That's okay) } **경계:** 각 단어의 "정의" 차 가장 중요함.
 (단어별 "정의") } (#아예 반응하기) # N6 스키아-복합해결
 (조어형 아주 어렵다)

인과는 적지만 대신 식으로 꾸어짐.
 예외는 적지만 정보량이 과함 기를 못지않다.
 필기- 표상 스키아보다는 **특히 치면서 "시간 라운드" 이해 문헌에서** 하는 게 낫다.

(예외 존함과 일반 관의 대조) **법:** 역시나 단어별 정의+그러나 이 표상!

(# But, And, So 연결어) # 간접 스키아



(선지에서 정보 왜곡 배는 운에 ~~다~~)

중구문

인문
가-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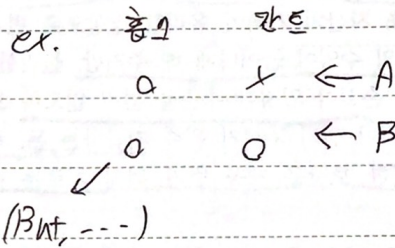
전 지문 연결하는 필기-표상 스키아와 학자별 대조표
 학자별 인문 선택이
 평상시 인문 지문보다
 더 상세하므로

를 치는 건 너무 위험함.

이해 = 시간↑.

그러므로 대조표 더 자주.

정의보다는 각 학자별 제시하는 문장 어조하기.



그러므로 풀기보다는 필기-표상 스키아 각 호의 **중요**.

선지에서 문제 형어, 주제 왜곡, A의 B,

다구 카워드 나시 가장 안 6 유형.

전 지문 대조 표가 중요하다.
연결하는

(정보량 ~~다~~, 인과 관계 ~~다~~, 적어 ~~다~~)
 # 문제 해결 도식 → 해결 문항
 # 인과 관계의 화살표 스키아

정보량 + 생소한 수식 단어들의 조합 = 겹겹이 안든다.

↑↑

전 지문

= 역시 필기-스키아는, 표는 여기서 안 먹힌다.

비례-반비례 가시화 유형

N6 전 지문, 문헌별 풀기
 필기 (정보량 많아져)

문제 해결 도식 +

자주 내용.

인과 관계
 많은 만큼

"단정 고쳐기"

유형 Good.

그러나 문헌별 끊어읽기는 유효하므로

문헌별 소규모 스키아 표상은

간단한 화살표 (비례, 반비례)

+

인과 한 스키아

ex. $\Delta S \uparrow \rightarrow \Delta G \downarrow$